

아침특강

단원별/동형 하프 모의고사1

- 문제를 보는 힘!! -

- 실시 : 1. 10월 30(목), 31(금)일  공개강의
2. 11월 4일 본강 시작
- 요일 : 화, 수, 목, 금 (주 4회)
- 시간 : 아침 7시 20분 ~ 8시 30분까지(70분간)
- 내용 : 국어 전 범위 하프 모의고사(10문제)
※ 수강생들과의 협의로 단원별 하프 모의고사
(4회 중 1회)로 진행될 때도 있음
- 진행방법
 -  1. 7시 20분 ~ 7시 30분까지 시험!!
 - 2. 7시 30분 ~ 8시 30분까지 해설 강의
 - 3. 매주 1회 “ 시험에 100% 나오는 어휘 제공
→ 화요일 제공, 금요일 테스트지 배부(견본 참조!!)

라도 이는 상당한 수준의 ㉠추상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형성된 개념이다. 우리가 ‘꽃’이라고 부르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‘무궁화, 진달래, 개나리, 목련, ……’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, 그 구체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. 바꿔 말해서, ‘꽃’이라는 말의 의미 내용은 우리가 수많은 종류의 꽃들로부터 공통 속성만을 뽑아 내는 과정, 즉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. 이러한 수많은 하위어(下位語)들을 묶어 표현하는 말들을 총칭어(總稱語)라고 하는데, 그 개념은 인간의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나간다면, 사실 하위어인 ‘무궁화’라는 단어 자체도 또한 추상화된 개념에 해당한다. 무궁화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, 하나하나의 모양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.

4. ㉠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?

- ① 영어의 ‘father’는 우리말의 ‘아버지’이다.
- ② 의미 ‘가을(秋)’은 소리가 [ㄱ술] > [ㄱ울] > [가을]로 변화했다.
- ③ 소리 [어리다]는 그 의미가 ‘어리석다 > 나이가 어리다’로 바뀌었다.
- ④ 의미 ‘호랑이(虎)’는 [범]과 [호랑이]의 두 소리를 갖는다.
- ⑤ 소리 [배]는 ‘배(腹)’, ‘배(梨)’, ‘배(丹)’의 세 의미를 갖는다.

5. 이 글에서 말하는 ㉡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눈물 → 슬픔
- ② 차도 → 도로
- ③ 나무 → 소나무
- ④ 쓸쓸함 → 가을
- ⑤ 자매 → 형제

♣ 시험에 100% 나오는 어휘10(17)

제공 : 김하늬 쌤

- 한자어** : 수작(酬酌) : (1)남의 말이나 행동을 하찮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르는 말.
(2) 서로 말을 주고받음. 또는 그 말.
(3) 서로 술잔을 주고받음. = 수작(授爵)
cf) 수작(秀作) / 수작(手作) /
- 한자성어** : 풍수지탄(風樹之嘆) -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어,
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이르는 말
cf) -'탄(歎)'자 돌림 : 맥수지탄(麥秀之嘆) = 서리지탄 [黍離之嘆](2014년 지방직 적중!)
망양지탄(亡羊之歎) = 다기망양(多岐亡羊) /
계옥지탄(桂玉之嘆) : 식량 구하기가 계수나무 구하듯이 어렵고,
땀감을 구하기가 옥을 구하기만큼 어려움.
비육지탄(髀肉之嘆) : 측나라의 유비가 은거하고 있던 시절에
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하여 넓적다리에 살이 찌는 것을 한탄한
고사에서 나온 말로,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
헛되이 세월만 보냄을 탄식함을 이르는 말
만시지탄(晚時之歎)
- 외래어 표기** : '릿(잇)'으로 써야될 것들 - 팸플릿, 캐비닛, 타깃, 재킷, 초콜릿 등등
- 표준어** : (복수 표준어) - 봉숭아/봉선화, 넝쿨/덩굴, 삼/살랭이, 보조개/볼우물
- 맞춤법1** : 야트막하다, 도떼기시장, 뒤치다꺼리 / 안절부절못하다, 주책없다,
칠칠맞지 못하다.
cf) 칠칠하다 :
(1) [주로 '-지 못하다'와 호응하여](사람이나 그 언행이)야무지고 반듯하다.
(2) [주로 '-지 못하다'와 호응하여](사람이)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다.
(3) (나무나 털이)잘 자라서 길고 보기 좋다.
ex) 트레머리가 탐스럽고 칠칠하다
(가르마를 타지 않고 뒤통수 한복판에 넓적하게 틀어 붙인 여자의 머리.)
- 순화어** : 한강 고수부지 - 한강 둔치, 구좌 - 계좌, 아나고 - 봉장어 / 곱장어 - 떡장어
- 우리말** : 결코틀다 - 가리는 데에 서로 지지 않으려고 이리 걸고 저리 틀며 팽팽하게
버티어 맞서다 (막상막하(莫上莫下), 난형난제(難兄難弟), 오십보백보(五十步百步))
- 관용구** : 오지랖이 넓다. - 오지랖이란 '옷의 앞자락'을 말함.
주제넘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가리킴.
예문 :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(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.) 캐는
거냐? <<심훈, 영원의 미소>>
- 속담** :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간다 - 서울이 낭떠러지와 마찬가지로 인심이 험한
곳이라고 하니까 미리부터 겁을 먹고 과천서부터 간다.
- 틀리기 쉬운 발음** : 늑막염[능망념], 불법유턴[불버뷰턴], 윗잇몸[원닌몸]

♣ 시험(17-1)

이름 : _____

1. 한자어 : 酬酌

2. 한자성어 : 風樹之嘆

cf) 麥秀之嘆 = 黍離之嘆 (2014년 지방직 적중!)

亡羊之歎 = 多岐亡羊

桂玉之嘆

髀肉之嘆

晚時之歎

3. 외래어 표기 : '릿(잇)'으로 써야될 것들 -

4. 표준어 : (복수 표준어) - 봉숭아/ , 넝쿨/ , /살쟁이, 보조개/

5. 맞춤법 (o,x): 야트막하다/얕으막하다, 돛데기시장 / 도떼기시장, 뒤치다꺼리/뒷치닥거리
안절부절하다/안절부절못하다, 주책이다/주책없다,
칠칠맞은/칠칠맞지 못한.

cf) 칠칠하다 :

- (1) [주로 '-지 못하다'와 호응하여](사람이나 그 언행) :
- (2) [주로 '-지 못하다'와 호응하여](사람이):
- (3) (나무나 털이) :

ex) 트레머리가 탐스럽고 칠칠하다

(가르마를 타지 않고 뒤통수 한복판에 넓적하게 틀어 붙인 여자의 머리.)

6. 순화어 : 한강 고수부지 - 한강 , 구좌 - , 아나고 - / 곰장어 -

7. 우리말 : 결고틀다 - (뜻)

(동의어) :

8. 관용구 : 오지랖이 넓다. - 오지랖이란 '_____ '을 말함.
(뜻)

예문 :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(_____) 캐는 거냐? 《심훈, 영원의 미소》

9. 속담 :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서부터 긴다 - (뜻)

(동의어)

10. 틀리기 쉬운 발음 : 늑막염[_____], 불법유턴[_____], 윗잇몸[_____]

하프 모의고사1

- 정답과 해설

1. ③ //

㉠의 '보기'는 보다(동사)의 어간 '보'에 + 기(명사형 전성어미)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동사이다. ① ② 파생명사 ③ 동사 ④ 부사 ⑤ 형용사

2. ⑤ //

①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

② 두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→ '유한한 반면'으로 고친다.

③ '대금'은 '타다'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. ④ '쓴 약에 비유하여'가 맞다.

3. ③ // - 이두현, 「한국 축제의 역사」

★ 문제(問題)

1.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.

2.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.

3. 성가신 일이나 논쟁이 될 만한 일.

4. 세상의 이목이 쏠리는 것.

5.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.

4. ③

'자의성'은 형식과 내용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. ② ③ ④ ⑤는 형식과 내용의 필연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. ①은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아니다.

5. ②

이 글에서 말하는 '추상화'는 하위어를 묶어 상위어(총칭어)로 개념화하는 것을 말한다.

즉 글의 전개방식으로 말하면 '구분'이 아니라 '분류'이다.